

같이 보기

: 산업보건기관 탐방기-울산산업보건센터

산업보건 선도기관에 부는 변화의 바람

울산은 두 얼굴이다.
우리나라 '산업수도'이자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노동자 도시'다.
그 속에 울산산업보건센터가 있고,
노동자 건강을 지켜 '산업수도'의
명맥을 잇게 한다.

글 정청천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외홍보팀



복새통 vs 정적

5월 17일, 울산 남구 선암동 울산선암의원, 울산산업보건센터 건강진단팀이 일하는 곳이다. 오후 3시가 넘어가는 시간에도 건강진단 대기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건강진단팀 직원들은 안내하랴 검진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하루 평균 400명가량이다.



건강검진센터

같은 시간, 200미터 남짓 거리의 또 다른 울산센터 건물 분위기는 사뭇 대조적이다. 보건관리팀, 환경위생팀 등의 직원이 일하는 이곳에는 정적이 감돈다. 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다. 밖으로 돌아다니기 바쁘다.



보건관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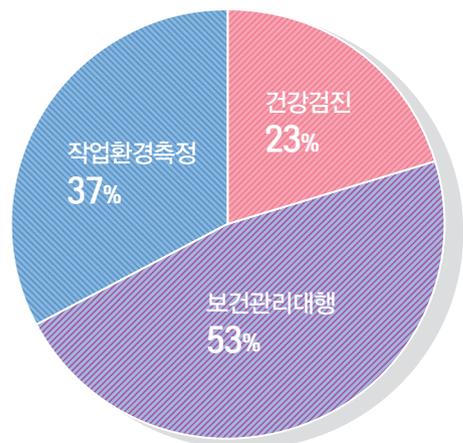
37년

울산센터의 출발은 1985년 문을 연 <동해산업보건센터>다. 특수건강진단(1985년), 일반건강진단(1987년), 보건관리대행(1991년), 작업환경측정(1991년) 등 순차적으로 사업영역을 넓혔다. 그러다 2005년에 울산선암의원을 개설했고, 2013년부터 <울산산업보건센터>로 이름을 바꿨다. 2000년에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같은 구의 선암동으로 이전했다. 울산센터의 현재 모습이 갖춰진 것은 2020년이다.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새 사옥을 지었다. 울산센터는 환경위생팀·보건관리팀이 일하는 새 사옥과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기존 사옥으로 나뉘게 됐다.

울산 산업보건 선도

울산센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으로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 지역 산업보건기관 중에서는 유일하다. 건강진단 분야에서도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기관평가 최우수 등급, 2021년도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A등급을 받았다. 높은 역량은 시장점유율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울산센터는 지역건강검진 23%, 보건관리대행 53%, 작업환경측정 37%를 차지하고 있다.

※ 울산산업보건센터 지역 내 시장점유율



같이 보기

: 산업보건기관 탐방기-울산산업보건센터

제조업 중심 사업구조

울산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65% 가량이다. 울산센터의 사업구조도 이를 따라가고 있다. 이곳의 주요 고객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제조업종 관련 주요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다. 이는 울산의 제조업 경기에 울산센터 사업실적이 연동된다는 의미다. 단편적으로 제조업 침체는 고용인원 감소로, 고용인원 감소는 건강검진 대상 인원 감소로 이어지며 2010년대 후반부가 그랬다. 울산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는 2015년 18만 6,809명에서 2019년 17만 7,173명으로 4년 동안 1만 명 가까이(9,636명) 줄었다.

66

선도기관으로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단점을 보완해 고객만족도를

지속해서 높여야 한다.

99

업종 다변화와 고객 만족

울산센터는 제조업 침체에 업종 다변화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장을 개발해 사업영역을 넓히고자 했다. 이와 함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 간에 소통강화와 의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울산센터의 노력은 성공적이다. 보건관리 위탁사업 업종의 다변화 및 50인 미만 사업장 유치로 관리사업장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조선업종이 침체를 벗어나면서 검진 대상 인원이 많게는 1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인성 운영지원파트장은 “성장과 발전은 산업보건의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울산센터 회의 모습

수요자 눈높이 맞추기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는 울산센터 직원들은 현재의 영광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까다로워지는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고 다른 기관과의 경쟁도 이겨내야 한다. 여기에 관리 의사 확보의 어려움과 주차 공간 부족 등 해묵은 과제도 있다. 김병득 센터장은 “선도기관으로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단점을 보완해 고객만족도를 지속해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울산센터 사람들



“우리 센터는 사업장 요청 사항에 대한 대응이 아주 빨라요. 특히 청력 버스 소유로 검사 신뢰도가 높고 많은 인원을 단시간에 검진할 수 있어서 평이 좋습니다.”

강전선 건강진단팀 팀장



“전문화된 인력들이 센터의 가장 큰 자산이죠. 맞춤형 업무 수행, 고도화된 전산시스템 운영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거든요.”

박영미 보건관리팀 팀장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작업환경측정 기관평가를 연속으로 S등급 받았습니다. 울산 지역 내 유일 한 결과라 자랑스럽습니다.”

이종길 환경위생팀 팀장

MINI INTERVIEW



30년 터줏대감의 ‘자유방임형’ 리더십

김병득 울산산업보건센터 센터장

어느덧 30년이 다 돼 간다. 김병득 센터장은 1993년 입사해 창원산업보건센터장 5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울산산업보건센터에서 일했다. 환경위생팀 사원에서 센터를 이끄는 센터장이 됐고 그렇게 울산센터의 변화와 발전을 이끈 주역의 일원이 됐다. 김 센터장은 ‘100% 확산’을 거부하는 리더다. 스스로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생각과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무엇이든 100% 진실이라고 확산해버리면 다른 진실을 알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김 센터장은 스스로에 대해 ‘자유방임형’이라고 평가했다. 논리는 이렇다. 구성원의 개별 업무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한다. 잘하고 있는 부분은 내버려 둔다.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다.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입해 개선을 유도한다. 이때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된다. 그는 구성원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지시형 끈대’가 되기를 거부한다. 실수는 인정하고, 구성원과의 대화와 소통으로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 김 센터장은 바쁘다. 핸드폰 달력은 뺄뺄하다. 빈 날이 없다. ‘이수회(매월 둘째 주 수요일 모임)’를 포함해 지역 단체와의 만남이 끊이지 않는다. 특별한 주제는 없다.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만약을 대비한 ‘보험’이다.

김병득의 자유방임형 리더십

1. 군림하지 않는다.
2. 실수는 ‘쿨’하게 인정한다.
3. ‘나는 항상 부족하다.’